

# 국 어

문 1. 다음 제시된 작품을 창작 시기 순으로 배열한 것은?

- ㉠ 군(君)은 어비여,  
신(臣)은 득스살 어시여,  
민(民)은 얼흔 아히고 흐살디  
민(民)이 득술 알고다.
- ㉡ 원순문(元淳文) 인노시(仁老詩) 공노스륙(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딘한림(陳翰林) 상운주필(雙韻走筆)  
통기대칙(沖基對策) 광군경의(光鈞經義) 량경시부(良鏡詩賦)  
위 시당(試場)스 경(景)의 엇더흐니잇고.
- ㉢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썩, 꾹 도쿄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브른 그믄래 아니 그츨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 ㉣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一百番) 꾹쳐 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여 녀시라도 잇고 업고  
님향흔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설 줄이 이시랴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문 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잘못 적은 것은?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으로 이두를 만들어서 지금  
까지 관청이나 민간에서 쓰고 있다. 그러나 한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難澁하고 혹은 통하지 않아  
鄙陋하고 無稽할 뿐만 아니라, 말을 적는 데 이르러  
서는 만에 하나도 제대로 疏通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계해(癸亥: 세종 25년, 1443년) 겨울에 우리 임금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한 예의를 들어 보이시  
었는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 ① 難澁하고: 상대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고  
② 鄙陋하고: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며 더럽고  
③ 無稽할: 근거가 없을  
④ 疏通하지: 잘 통하지

문 3.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맞는 단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그라나다(Grenada), 에콰도르(Ecuador)  
② 에티오피아(Ethiopia), 포르투갈(Portugal)  
③ 싱가포르(Singapore), 베네주엘라(Venezuela)  
④ 아이티(Haiti), 아랍 에미리트(Arab Emirates)

문 4.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눈물방울 이리 많은지  
각이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가면서  
반짝이는 반짝이는 우리나라 눈물 보았네  
보았네 보았네 우리나라 사랑 보았네  
재원도 부남도 지나 낙월도 흐르면서  
한 오천 년 떠밀려 이 바다에 쫓기운  
자그맣고 슬픈 우리나라 사랑들 보았네  
꼬막 껍질 속 누운 초록 하늘  
못나고 뒤엎긴 보리밭 길 보았네  
보았네 보았네 멀치 덩장 산마이 그물 너머  
바람만 불어도 징징 울음 나고  
손가락만 스쳐도 울음이 배어 나올  
서러운 우리나라 앓은뱅이 섬들 보았네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설움 이리 많은지  
아리랑 아리랑 나리꽃 꺾어 섬 그늘에 띄우면서  
- 광재구, 「전장포 아리랑」 -

-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며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 대한 연민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동일한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문 5. <보기>를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닭다 ㉠

- (1) 때, 먼지, 녹 따위의 더러운 것을 없애거나 윤기를 내려고 거죽을 문지른다.  
(2) 거죽의 물기를 훑치다.

|       | 피동사   | 사동사   |
|-------|-------|-------|
| 닭다(1) | ㉠ 닭이다 | ㉡ 닭이다 |
| 닭다(2) | ㉢ 닭이다 | ㉣ 닭이다 |

- ① ㉠: 얼룩이 깨끗이 닭인 유리창을 보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② ㉡: 때밀이에게 아이의 몸을 닭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③ ㉢: 그가 손으로 코를 문지르자 흐르던 콧물이 닭었다.  
④ ㉣: 식탁 위 우유가 깨끗하게 닭이지 않았다.

문 6. 다음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꽃이, 옥비취,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 · 전장(田庄) ·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잡고서 본값의 십분의 삼이나 십분의 오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千金)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하였다.

(중략)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땅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 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저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만치 팔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하였다.

서울 안에 명기(名妓)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예전에 궁중의 우림아(羽林兒), 각 전(殿)의 별감(別監), 무마도위(駙馬都尉)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雲心)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거문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다.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上坐)에 앉았다.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썹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 대고, 형클어진 머리로 북상투(北髻)를 튼 채였다.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였다.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높으랴 낮으랴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 박지원, 「광문자전」 -

- ① ‘광문’은 남녀평등 의식을 갖고 있다.
- ② ‘광문’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
- ③ ‘운심’은 외모보다는 내면을 중시한다.
- ④ ‘운심’은 고고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익살과 기지가 있다.

문 7. 문장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편지는 나에게 잊혀진 지 오래다.
- ②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7명이다.
- ③ 그는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 ④ 그분의 선행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문 8.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기업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치자. 이때 1명의 주주가 그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면,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 없이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한 사람의 원고를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바로 이것이 집단 소송제이다. 이 제도는 1960년대 시민의 권리 찾기 운동이 꽃을 피웠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피해자의 숫자는 많으나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클 때 특히 집단 소송제가 절실해진다. 집단 소송제는 같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한목소리로 단일화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밟고 소송비용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되면 무엇보다 분산된 사회적 권리를 더욱 많이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공장 가동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하자.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과 그 피해를 밝히자면 엄청난 경비가 들고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소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못 낼 것이다. 주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가 작아 보일 때는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이 각각 분산되어 있는 작은 환경적 권리를 집단 소송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 ① 집단 소송제는 1960년대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 ② 집단 소송제는 분산되어 있던 사회적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다.
- ③ 집단 소송제를 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체 소송비용이 줄어든다.
- ④ 집단 소송은 다른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집단이 단일화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 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조(一朝) 낭군(郎君) 이별(離別) 후에 소식(消息)조차  
돈절(頓絶)하야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삼 일로 아니 오더나  
이 아해야 말 듣소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짖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춘수(春水)가 만사택(滿四澤)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峰)하니 산(山)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六觀大師) 성진(聖眞)이는  
석교상(石橋上)에서 팔선녀(八仙女) 다리고 희롱(戲弄)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병풍(屏風)에 그린 황계(黃鷄) 수탉이 두 나래 동덩 치고  
짜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사경(四更) 일점(一點)에 날 새라고 꼬찌요 울거든 오라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너란 죽어서 황하수(黃河水) 되고 날란 죽어서 도대선  
(都大船)이 되야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동덩실 떠서 노자  
저 달아 보느냐  
임 거신 데 명휘(明輝)를 빌리려문 나도 보게  
이 아해야 말 듣소  
추월(秋月)이 양명휘(揚明輝)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테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나  
지어자 좋을시고

- 작자 미상, 「황계사」 -

- 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③ 한시, 소설 등 다른 작품을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화자의 정서와 다른 이질적인 후렴구를 통해 흥을 돋우고 있다.

문 10.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경우  
㉡: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① ㉠: 기르다    ㉡: 먹히다
- ② ㉠: 비우다    ㉡: 먹었다
- ③ ㉠: 정답다    ㉡: 귀엽다
- ④ ㉠: 앓되다    ㉡: 드높다

문 11. 다음 (가)~(라)를 문맥에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것은?

- (가) 그러나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인간적 시도들은 그것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무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들만이 가지는 순간적 아름다움의 광채를 포착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기억이 완벽할 수 있다면 아무도 기억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며, 사유가 완전할 수 있다면 아무도 사유의 엄밀성을 이상화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의 한계 때문에 상상은 위대해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도전 때문에 표현은 아름다워진다.
- (나) 기억과 사유, 상상과 표현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독특한 능력들의 목록을 대표한다. 하지만 그 네 가지 능력의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 기억은 수많은 구멍들을 갖고 있고 사유는 불안하다. 상상은 기억과 사유의 한계를 확장하지만 유한한 경험의 울타리를 아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형식과 내용도 시간성에 종속된다.
- (다) 책은 인간이 가진 독특한 네 가지 능력의 유지, 심화, 계발에 봉사하는 가장 유효한 매체이다. 문자를 고안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을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다. 문자가 등장한 역사는 6,000년, 지금 같은 형태의 종이 인쇄 책의 역사는 600년에 불과하다. 자연 선택이 사냥과 채집 등 인간 종의 생존에 필요한 다른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한 뇌 건축물의 부수적 파생 효과 가운데 하나가 책을 쓰고 책을 읽는 기능이다. 말하자면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다.
- (라) 그런데 이 '덤'이 참으로 중요하다.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사유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러나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낸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 ① (나)-(가)-(다)-(라)    ② (나)-(다)-(라)-(가)
- ③ (다)-(나)-(라)-(가)    ④ (다)-(라)-(나)-(가)

문 12.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어떤 두 진술 사이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이 그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이 옳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진술 'p'와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모순 관계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옳은 진술이다. 이러한 진술 형식을 배중률이라 한다.

또한 '어떤 것이든 p이면서 p가 아닌 것일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술도 반드시 옳은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 형식을 무모순율이라 한다. 배중률은 모든 진술이 옳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는 원리를, 무모순율은 옳으면서 동시에 그른 진술은 없다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어떤 두 진술 사이에는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두 진술 사이의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한다.

- ① '나는 남자이다.'와 '나는 남자가 아니다.'는 모순 관계에 있다.
- ② '어떤 것이든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니다.'는 배중률에 해당한다.
- ③ '어떤 것이든 사람이면서 남성이 아닌 것일 수 없다.'는 무모순율에 해당한다.
- ④ '지금 덥다.'와 '지금 춥다.'라는 진술 사이의 관계는 반대 관계이다.

문 13. <보기>의 논리와 같은 방식이 사용된 문장은?

< 보기 >

내가 당신에게서 벡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소중하게 다루었소.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렸지요. 이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그대를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이별의 시간이 되면 소중하게 되돌려 줄 것이요.

- ① 공부는 등산과는 다른 것이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행위이고 등산은 몸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②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라는 노랫말은 원숭이와 사과의 유사한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③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토종 물고기를 돌보지 않은 채 외래종 물고기를 들여온 우(憂)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 ④ 오늘날 고리타분한 전통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편리하고 신속한 생활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문 14. 다음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인간은 단지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한다. 바로 그 목적이 규범적으로 그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며, 그의 의지는 끊임없이 그 목적을 따라야 한다. 인간은 노동하는 동안 신체적인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긴장하면서 주 의력을 발휘하여 그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 (나) 거미도 방직공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하며, 꿀벌의 벌집구조는 건축가들의 솜씨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서툰 건축가라 해도 숙련된 꿀벌보다 나은 면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가가 벌통 속의 벌집을 만들 경우 미리 자기 머릿속에 그 벌집을 그려보기 때문이다. 노동의 결과는 노동자의 상상 속에 관념으로 이미 존재한다.
- (다)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통제한다. 인간은 자연의 물질을 자신의 삶에 유익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팔, 다리, 머리, 손과 같은 자신의 신체 기관을 움직인다. 이 움직임을 통해 그는 외부 자연에 작용하여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본성도 변화시킨다.
- (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에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실현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연의 힘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둔다. 우리는 여기서 동물 수준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노동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에만 주목하려고 한다.

- ① (가)-(다)-(라)-(나)      ② (가)-(나)-(다)-(라)
- ③ (다)-(가)-(라)-(나)      ④ (다)-(라)-(나)-(가)

문 15. <보기> ㉠~㉤의 높임법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선생님께 여쭙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 ㉡ 어제 그녀가 시립 미술관에 갔었니?
- ㉢ 네가 친구한테 휴대폰을 가져다주었구나.
- ㉣ 우리 학교에 가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합시다.

- ① ㉠에서는 격 조사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② ㉡은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고, 하계체 문장이다.
- ③ ㉢은 종결 어미에 '요'를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과 격식성 여부가 동일하다.
- ④ ㉣에 사용된 청유형 종결 어미 '-하시다'는 격식체 중 하오체 어미이다.

문 16. <보기>를 바탕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기 —

- ㉠ 벤치에 앉은 그녀는 너무 예뻐다.  
 ㉡ 경찬이는 TV에서 만화를 보았다.  
 ㉢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 우리도 경전철이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부사어와 서술어이다.  
 ② ㉡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4개이다.  
 ③ ㉢을 보면 문장의 부속 성분인 부사어 ‘우리들에게’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④ ㉣에는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가 2개이므로 중복되는 주어를 생략해야 한다.

문 17. <보기>의 ㉠~㉣ 중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 보기 —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 또는 관형사 등이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한다.

- ㉠ 긴 이불을 팔다.                      ㉡ 한 이불을 덮다.  
 ㉢ 저 이불을 빨다.                      ㉣ 새 이불을 사다.

- ① ㉠                      ② ㉡                      ③ ㉢                      ④ ㉣

문 18. 밑줄 친 단어 중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양쪽 채가 수평이 되도록 들어라.  
 ② 무를 채 쳐서 김치를 담그는 데 썼다.  
 ③ 나는 뒷집을 진 채 마당을 잠시 어정거렸다.  
 ④ 황제의 손에는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문 19.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에 테를 매다.  
 ② 이번 일로 근심이 많을 것이라 사료된다.  
 ③ 젊은 부부는 사글세로 방을 얻어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④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닥친다.

문 20. 맞춤법에 맞는 어휘로 짝지어진 것은?

- ① 녁쿨, 녁째, 녁슨, 녁이다, 끈지르다  
 ② 눈썹, 늘어불다, 늘그막, 늘리리, 물크러지다  
 ③ 나지막하다, 난쟁이, 냄비, 녀희들, 콧망울  
 ④ 담배꽁초, 더욱이, 똥이다, 도저히, 짹잘하다

## 영 어

문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person in a flotation tank has almost no \_\_\_\_\_ stimulation. The tank is dark and soundproof, and the person floats in water at body temperature, unable to see or hear and scarcely able to feel anything.

- ① sensory                      ② sensible  
 ③ sentient                      ④ sensitive

문 2.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 ① When you are driving on rain-slick, icy, or winding roads, good traction is of paramount important, so always be sure your tires are in top condition.  
 ② As the snowstorm got worse and worse and his wife still hadn't arrived home from work, Jeff became increasingly distraught.  
 ③ Teddy hates catching a cold. When anyone is sneezing and coughing in his presence, he opens a window and fans the air to dissipate the cold germs.  
 ④ Last year, the town experienced a sizzling summer that was the reverse of its frigid winters.

문 3.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Andy, are you busy right now?  
 B: I'm checking an email about my work schedule tomorrow. Why, what's up?  
 A: There's something I think you need to take care of right away.  
 B: What is it?  
 A: The roof. We haven't fixed the leak in it yet and it's supposed to rain this evening.  
 B: Really? I didn't know it was going to rain tonight. I was planning on fixing it this weekend.  
 A: I know, but you can do it right now? Otherwise, \_\_\_\_\_.  
 B: Okay. I'll fix it right away.

- ① you can print out an email notice  
 ② I can check tomorrow's schedule  
 ③ rain will leak into the house  
 ④ the weather report might be wrong